

영어는 사실 쉽다! 재밌다!

■ 저자소개

오르비닉네임 transcendent

- 경력 1. 특목고 준비 학원에서 듣기, 독해를 억지로 공부
2. 외고 진학
3. 수능을 공부할 때 내내 무식한 방법으로 단어, 문장을 암기
4. 모든 시험에서 항상 만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1등급 실력을 갖추
5. 대학교 진학 후, speaking과 writing을 다시 공부해야한다는 사실 인식
6. 언어습득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직접 실험

■ 목차

머리말.....	1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2~3
외국어를 익혀보자.....	4~5
부록.....	6~8
영어공부 tip	
효율적인 공부를 위한 tip	
Q&A	

■ 머리말

전 고등학생 때까지는 ‘1등급’이라는 목표만을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성취’를 위한 공부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빠져 지내는 학생들을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대학생이 된 후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공부만 아니면 다 재미있는 그 느낌!

주로 시험기간에 발생하는 질환이죠. 해야 할 일을 앞에 두었는데 도저히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어도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책상은 제 2번째 침대가 되어있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채찍질해보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방법을 찾아보았고, 직접 제게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고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익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을 포함해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제 방법을 꼭 실천해보셨으면 합니다. 외국어에 관심이 있거나, 특목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수능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모든 대학생들에게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정도로 영어의 밑바탕을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영어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영어문법? 회화? LC? RC?)

위와 같은 생각들이 드신다면,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영어 시험을 공부하는 중인 것이죠. 학원에서는 영어시험처럼 ‘객관적인’ 수치 산출해야 학생들을 낚고,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재미와 흥미는 학원에서 관심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뽑아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죠. 우리가 영어 시험을 준비할 때는 정말 그 영어 성적이 필요할 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열심히 따라잡니다. 그 중 좋은 성적을 받고 영어시험공부를 마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주장하죠.

“공부에는 의지가 필요하다.” “독기가 있어야 한다.” “치열해야 한다.”

네. 정말 독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항상 낙오자가 생깁니다. 이성은 점수를 따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안 따라주는 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정말 독한 놈만이 영어(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답은 ‘그렇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이러한 분들을 위한 영어공부방법입니다. 수능, 토익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으로 외국어를 재미있게 익히셨으면 합니다.

■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1. 언어를 익힐 때는 반드시 입을 이용해야 한다.

외국어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야 합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시험영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다시 공부해야합니다. 발음교정부터 시작해서 말하기 연습까지 말이죠. 집에서 공부하세요. 아무도 없는 공간이 공부하기 좋습니다.

2. 처음부터 시험공부를 하지 말고, 되도록 영어를 익히자.

시험 하나만을 보고 공부한 경우에는 죽은 영어를 익히게 됩니다. 무지막지한 단어장을 암기하고, 독해와 듣기만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충분히 시험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는 순간 그 지식의 많은 양이 증발합니다.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영어입니다.

요즘에는 다행이도(?) 작문과 말하기 시험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시험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작문, 말하기 시험을 준비해야하는 것일까요? 네. 시험을 보기 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험에 최적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평소에는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제시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영어를 익히세요. ‘재미’가 없으면 결국 낙오하게 되어있습니다.

3. 현란한 문법에 현혹되지 마라.

최소한의 문법은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영어에서 의미는 어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5형식만 알면 기본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법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접하는 예문의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법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은 따로 문법문제를 풀면서 익히면 됩니다. 얇은 책 한권이든 이론적 지식은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문제를 푸는 것보다 직접 쓰기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설명에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영어화자들이 그렇게 쓰니까 우리도 그렇게 쓰면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세요. I would fly to you. 내가 너한테 날아갔을 걸. 이 정도의 의미죠? 여기에 이름을 붙여서 가정법이다. 가정법은 어떤 형식으로 써야한다. 이런 현란한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황을 익히고, 의미를 익히면 문법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영어에 특별한 용법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가 실제 한국어에서 다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4. 언어를 통합적으로 익히자.

듣기 따로, 문법 따로, 단어 따로, 영작 따로 공부하면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또한, 실제 언어와는 동떨어진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EBS를 공부하실 때도 독해만 읽고, 분석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EBS에서 제공하는 듣기 파일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그건 재미가 없어요.

5. 학원 강사들의 한계

학원강사는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면 명강의를 하는 명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적을 올려주는 것이 직업이니까요. 고3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동안 쌓은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문제풀이 기술만 익히면 됩니다. 토익이나 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만 잠깐 그들의 도움을 얻으면 됩니다.

학원강사들은 영업전략으로 수강생 유지를 위해서 쓸모없지만 그럴듯한, 때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까지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주로 문법지식으로 학생들을 압도하죠. 전 매우 화가 납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을 현혹하고 그들의 강의를 듣게 하게 위함입니다. 모국어 화자가 아닌 우리에게 기초적인 문법지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기초적인 사항들만 알면 됩니다. 교과서나 가장 간단한 문법책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학교문법만 해도 차고 넘치니까, 딱 그 정도만 공부하세요.

예전에 영어강의를 하시는 학원강사분들께서 평가원 문제 하나에 대하여 서로 논쟁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법지식을 겨루셨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법을 더 잘 아니까 그 사람이 더 훌륭한 강사일까요? 영어를 전공할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듯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영어가 왜 그렇게 사용되는 지에 대한 영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이 하는 것이며, 수험생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가 무거워 지는 공부인 것이죠. 언어가 먼저 존재하는 것이고 문법은 언어학자들이 그 규칙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여러 문법 용어를 이용하여 멋있게 답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학원강사가 "이건 그냥 이렇게 쓰여."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뒷담화를 하고, 안 좋은 강의라고 폄하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럴 듯한 이유를 대야 학생들이 믿고 학원강의를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